

오늘은 수능 후기 시리즈 2 탄으로 돌아온 '파급 효과'입니다.
수능 2 교시 수학 자세한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국어가 10 시에 끝나고....

국어가 끝나면 10 시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응시하는 것과 다르게 바로 화장실에 가실 수 없습니다.

10 분 동안 인원 체크, 시험지 수, 답안지 수 확인을 합니다.

이런 뒤에 10 시 10 분부터 10 시 20 분까지 쉬는 시간이고

10 시 20 분에는 다시 방송에 따라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국어와 마찬가지로 파본 검사 때 킬러, 준킬러 4 점을 천천히 확인합니다.

이 후 시작종이 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10 시 30 분 수능 수학 가형 시작.....

종이 치자 어떤 분은 미친 스피드로 종이를 넘겼지만

저는 그에 상관없이 1 페이지를 평소 페이스에 맞게 실수 없이 풀려했습니다.

수학도 그렇지만 다른 과목도 종이 넘기는 소리로 옆 사람과 경쟁하지 마세요.

(국어에 이거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은 저처럼

문학으로 스타트해 다른 사람 기선 제압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10 분-20 분 정도 지나면 종이 넘기는 박자도 달라지고

수학 같은 경우 4 점짜리가 시작되면 조용해집니다.

제 고사실도 10 분 정도 지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적이 흐르더군요.

이 때 조심하셔야 될 게 공부할 때 노래 자주 들으시는 분은

생각이 필요한 4 점 문제에서 집중해야 하는데

갑자기 노래 가사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노래 듣는 거 참 좋아하는데

수능 때 떠오르지 않게 수능 3-4 주 전에는 공부하면서 노래를 안들었어요.

처음에 노동요가 없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수능 때 MP3 로 노래들으면서 수능 볼 꺼 아니잖아요?

izone 아 드디어 데뷔를!!!!

~~izone 노래는 수능 끝나고 들으세요. 지금은 저만 들을겁니다.~~

본격적인 문제 풀이.....

암튼 이제 본격적인 문제 얘기로 넘어가면

저는 처음에 계산 과정이 꼬여서 7 번에서 막혔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발 약간이라도 막히면 어떤 과목이든 넘어가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뭐 7 번은 나중에 와서 풀면 가볍게 풀리겠지 하는 마인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다시 돌아왔을 때 가볍게 풀렸구요.

다시 풀 때는 전에 썼던 풀이과정에서 오류를 찾지 마시고

차라리 싹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잘 풀다가 20 번 보고 당황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최대값의 최소, 최소값의 최대." 이래서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2-3 분이 걸려 일단 넘어갔습니다.

21 번도 당연히 어려워 보여서 넘어갔구요.

4 점짜리 문제 푸는 시나리오가 2-3 분 안에 안나온다 하시면 일단 넘어가세요.

그리고 또 다른 고비 27 번.....

저는 ebs 총이였기 때문에

"어 이거 수완 실전 모의고사 4 회에 있던 그림인데 이게 나왔네. ㄷㄷ"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3 분 안에 문제 푸는 시나리오가 잘 안짜져 넘어 갔습니다.

연계 체감한다고 당장 막 푸는건 아닙니다.

29 번은 다행이도 5 분 안에 smooth 하게 풀렸습니다.

킬러 푸실 때는 계산 천천히 맞는지 확인하면서 가세요.

또 킬러는 문제가 기니 문장 단위로 끊어 읽어가며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세요.

예를 들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함수식을 보며 그래프를 그린다던지

기벡 같은 경우 내적 조건을 해석하고 입체 그림을 그린다 던지요.

이거 안하고 문제만 다 짹 읽어내려가면 "뭐해야하지?"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한 문장씩 끊어서 읽고 그 문장에 맞는 문제 풀이 행동을 하세요.

이제 30 번 차례인데....30 번은 딱 봐도 저보고 풀라는 문제가 아니기에 시간 투자하지 않았습니.

평소 훈련 때도 너무 어려운 30 번은 넘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지 기준은 경험을 통해 획득하셔야 합니다.

30 번이라고 막 넘겨서는 안돼요.

이런 과정을 겪고 40 분이 남았고 27 번으로 돌아왔습니다.

27 번은 해야할 행동을 다 하니 합동이 보였고 5 분 안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ebs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푸는데 지장은 없었네요.

(27, 29 번 자세한 풀이법이 궁금하신 분은

<https://orbi.kr/00018912302> 에 가시면 수완 선별 자료 중

2~4 쪽에 잘 나와있습니다. 게시글에서 수정 사항 꼭 확인하세요.)

7 번도 다시 돌아가서 빨리 지우고 다시 풀었구요.

이제 20, 21, 30 이 남았습니다.

20 을 먼저 도전 해야겠죠?

ㄱ, ㄴ, ㄷ 같은 경우는

유기적인 flow 가 있어

ㄴ을 풀 때 ㄱ을 고려해야고 ㄷ을 풀 때는 ㄱ, ㄴ을 고려해야합니다.

하지만 (ㄱ) 판별부터 까다로웠고 어쩔 수 없이

(ㄴ)부터 판단했는데 이건 판단이 꽤 괜찮았어요.

(ㄴ)이 맞다고 판단하고 (ㄱ)을 보니 판별이 쉽더군요.

(ㄷ)은 외적 써서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ㄱ, ㄴ, ㄷ 다 맞게 나왔고 맞았습니다.

이러고 나니 20 번에 시간을 뺏겨 20 분 정도가 남더군요.

21 도전을 하고 싶었지만 본전이라도 건지자 하며

검토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수능장에서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검토를 하니 시험은 끝나 있었습니다.

검토해서 틀린 것을 찾아내지 못했고

실제로도 푼 건 다 맞았습니다.

누군가는 20 분 남았는데 차라리 21 풀고 96 받지.....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18 수능이 꽤 까다로운 시험이라고 생각했고

20 분 남기고 킬러 풀기에는 제가 너무 졸보 였습니다.

20 분 남은 상황에서 검토할지 킬러 풀지 고민이시라면

저는 검토를 추천드립니다.

20 분 안에 21 못풀고 검토 안해서 하나 틀려서

88 로 2 등급 받은 케이스가 매우 흔했거든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점수는 21, 30 틀려서 92 점....

제가 본 평가원 시험 중 제일 잘봤습니다.

결론:

1. 실질적 쉬는 시간은 30 분이 아니라 10 분!!!
2. 시험지 파본 검사하면서 비킬러, 킬러 시간 배분 계획 시뮬레이션 돌리세요.
3. 제발 모르면 넘어가요. 내가 어려우면 다른사람도 어려워요.
4. 못봤다고 생각해도 실망하지 않고 넘어가세요.
5. 절대 친구 분들이랑 답 맞추지 마세요.
6. 못 봤다고 생각해도 수시가 나를 구원해주겠지 마인드로 조급해 하지말고 넉넉하게 시험을 봅니다.

유용하실수도 있는 링크들

<https://orbi.kr/00018912302> ----> 수능 완성 기하와 벡터 선별, 관련 기출 및 실전적 꿀팁들

<https://orbi.kr/00018889587> ----> 18 수능 0,1 교시 후기

<https://orbi.kr/00018874580> ----> 18 년 실시 교육청, 평가원 기출 선별

<https://orbi.kr/00018868599> ----> 수능 완성 미적분 2 선별, 관련 기출 및 실전적 꿀팁들

<https://orbi.kr/00018852528> ----> 수능 특강 미적분 2, 기하와 벡터 선별 문제, 관련 기출

<https://orbi.kr/00018839767> ----> (경험담)수능 때 기적이라는게 있을까?

<https://orbi.kr/00018834366> ----> 수능날 주민등록증을 안가져왔다면? (경험담)